

석유시장, OPEC 영향력 퇴조조짐

로이드, OPEC 원유 수요 갈수록 감소 ... 2006년 2210만배럴 수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감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지만 국제 원유시장에서 OPEC 원유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OPEC의 원유 선적이 지난 2년여 사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험그룹 로이드가 12월13일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로이드의 해운정보를 인용해 12월10일까지의 1주간 OPEC의 석유 선적이 하루 평균 2210만배럴로 200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로이드 관계자는 “정유업체가 유황 함유량이 많은 중동산 중유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현재 유럽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것과 미국의 정제능력이 약화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OPEC 석유 선적이 많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예년 같으면 북반구의 연료 소비증가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해 OPEC 석유 선적이 늘어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OPEC 의장인 에드먼드 다우코르 나이지리아 석유장관은 12월13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기자들과 만나 14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정례 OPEC 각료회담에서 추가감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측통들은 OPEC가 즉각적인 추가감산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2007년 초 추가 감산을 위한 준비작업에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앞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크레디 아그리콜 산하 에너지시장 조사기관인 칼연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OPEC가 2007년 1월 말 특 회동을 재소집키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14일 회동에서 하루 30만배럴을 즉각적으로 추가 감산하고 2007년 초 감산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07년 2월1일부터 하루 50만배럴을 줄이는 방안도 옵션으로 제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OPEC는 2006년 10월 긴급 회동해 산유쿼터를 11월1일자로 하루 12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감산쿼터 할당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생산 감축분은 합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OPEC 일부에서는 1차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감산을 단행하면 OPEC의 대외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월13일 공개한 세계 석유수급 최신 월간보고서에서 석유 수요가 2006년 1.1% 증가한 하루 8450만배럴, 2007년에는 1.7% 늘어 859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EA의 11월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떨지가 향후 석유 수급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석유 수요에 대해서는 2006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앞서 예상된 증가율은 6.2%였다. 중국의 2007년 석유 수요는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원유가격은 유럽의 기온이 예상보다 춥지않는 등 가격하락 요소가 있지만 미국의 석유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OPEC의 추가감산이 점쳐지는 등 공급위축 변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4>